音読　上トレ　１０　ワシントンの徐在弼銅像

그제 워싱턴 한국인 동상 1호로 서재필 동상이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제막됐다. 양복 차림에 왼손에 재킷을 든 모습이 고향 전남 보성에 있는 동상과 같다. 미국 한인 사회는 '재미한인의 아버지'라 할 서재필 동상이 한인 젊은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. 워싱턴시도 6일을 '서재필의 날'로 선포했다. 1885년 6월 스물한 살 조선 청년 서재필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내린 지 120여년 만이다.

서재필은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했다. 그 사이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죽는 바람에 혈혈단신이 됐다.